

갈 길은 멀지만, 회원 여러분과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6월 20일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해주신 회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6월 7일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국토대장정을 함께해 주신 각 지역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희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2~3개 시군연합회를 들러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저와 한농연 임직원들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농촌을 지키며 농사일과 농권운동에 매진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확인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정안에 누락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정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날 한농연 전체 조직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우리 스스로 지키고 키워야만 합니다.

7월에는 농민과 양심적인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한우값의 20%밖에 안 되는 가격을 무기로 6월 한 달에만 무려 1,200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돼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습니다. 7월말 광우병위험물질이 있는 미국산 척추뼈 쇠고기가 발견되어 정부는 검역 중단조치를 내렸지만, 현행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6월 20일의 2차 총궐기대회는 한농연 조직의 단합된 힘으로 한미 FTA의 원천 무효와 비준 저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과 함께 하는 FTA 저지 활동을 만들기 위한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농촌과 생활 현장 곳곳에서 우리 한농연의 농권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8월말까지 진행되는 각 시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바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만들고 농민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한마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힘든 농사일은 잠시 잊고,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걸쭉한 막걸리 한 잔 함께 걸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십시오.

